

# 피지컬 AI와 첨단 방산 협력 본격

### 전북대, 글로벌 방산 유니콘 기업 쉴드 AI와 전략적 협력 체계 구축

### AI 기술·실증경험·플랫폼 운영 연계... 인턴십·교육과정 신설 추진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글로벌 방산 유니콘 기업 쉴드 AI(Shield AI)와 피지컬 AI 및 방위산업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양오봉 총장을 비롯해 강은호·장원준 교수(첨단방위산업학과) 등 전북대 대표단은 최근 미국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쉴드 AI(Shield AI) 본사를 방문해 기술 협력과 교육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쉴드 AI는 팰란티어(Palantir), 인두릴 인더스트리즈(Ardur Industries)와 함께 글로벌 3대 방산 AI 유니콘 기업으로 꼽힌다. 자율비행·자율전투를 구현하는 하이브리드 AI 플랫폼(Hybrid AI Platform)을 통해 AI 파일럿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저가형 수직이착륙 무인기 V-BAT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실전 운용을 통해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받았다. 해당 기체는 현재 한국 해군에서 시범 운용되는 등 글로벌 방산 시



양오봉 총장을 비롯해 강은호·장원준 교수 등 전북대학교 대표단은 최근 미국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쉴드 AI(Shield AI) 본사를 방문해 기술 협력과 교육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장으로 빠르게 진출하고 있다. 아울러 쉴드 AI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AI 파일럿 K-Alt 개발을 지원하는 기업으로, 국내 기업들이 독자적인 소버린 AI(Sovereign AI)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전문 기술과 노하우

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전북대 대표단은 쉴드 AI의 아시아 담당 선임 디렉터 코너 비어(Connor Vior)와 하이브리드 엔지니어링 디렉터 비바브 가네시(Vibhav Ganesh) 등 핵심 관계자 1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전북대가 주관하는 피지컬 AI 사업에 쉴드 AI의 기술 지원과 실증 경험, 플랫폼 운영 노하우를 연계하는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했다.

또한 쉴드 AI(Shield AI)가 카네기멜런대학교(Carnegie Mellon University),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Southern California) 등 미국 유수 대학들과 공동 추진 중인 AI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전북대 환경에 맞게 최적화해 AI 전문 교육과정 신설과 학생 인턴십 참여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의를 바탕으로 협력 범위를 더욱 구체화해, 가까운 시일 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오봉 총장은 "글로벌 최고 방산 AI 유니콘 기업이자 K-방산 소버린 AI 구축을 지원하는 쉴드 AI와의 협력은 전북대가 주관하는 피지컬 AI 사업과 첨단 방산·AI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모델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첨단 AI 교육 프로그램과 인턴십 연계를 통해 전북대 방위산업학과 학생들이 글로벌 방산·AI 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내 손으로 발명품 만들어볼까?'

### 군산교육지원청, 겨울방학 발명캠프 초 3~6학년 대상... 19~20일 2기 운영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성기)은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발명 역량 강화를 위해 겨울방학 발명캠프를 운영한다.

군산 관내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22명을 대상으로 한 겨울방학 캠프는 지난 12~13일 1기를 진행한 데 이어 19~20일에는 2기를 운영한다.

특히 체험 중심·참여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학생들이 다양한 발명 도구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창의적인 산출물을 만들어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카프라를 활용한 나만의 생활용품 만들기 △메이커메이커를 활용한 나만의 악기 만들기 △마이크로비트와 티피봇을 활용한 자율주행 자동차 제작하기 등이 있다.

학생들은 팀별 협업 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제 작품으로 구현하는 경험을 하면서 창의적 사고력과 협업 역량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만들기 활동을 넘어 발명의 원리와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군산교육지원청발명교육센터는 캠프 이후 차기년도 교육과정 계획 수립 및 2026학년도 발명교육센터·미래창작공간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성기 교육장은 "이번 발명교육 겨울방학 캠프가 학생들에게 발명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스스로 생각하고 도전하는 창의적인 태도를 기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체험형 발명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김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15일 '2026년 전북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14개 시·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학교·학부모·지역사회 협력 강화로 교육발전 모색

### 전북교육청·전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신년 간담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15일 '2026년 전북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 간담회에는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해 14개 시·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 시무국장, 상임고문 및 자문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새해 전북교육 방향을 공유하고, 소통과 협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2026년도 전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활동을 공유하고, 2026년도 전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했다.

참석자들은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학생 중심 미래교육에 적극 참여해 건강한 교육생태계를 열어가는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유미연 회장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구조를 통해 전북교육의 신뢰를 높여겠다"고 밝혔다.

유정기 권한대행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연결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라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교육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수도권·지역 경계 넘어 글로벌 인재 양성 '맞손' 전북대·서울대, 글로벌 해외 연수 프로그램 입학식 개최

### 전북대·서울대, 글로벌 해외 연수 프로그램 입학식 개최

### 연수 프로그램 입학식 개최

전북대학교 총장 양오봉과 서울대학교(총장 유홍림)가 수도권과 지역의 경계를 넘어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본격적인 협력을 나섰다.

양 대학은 지난 1월 12일 서울대학교 국제처에서 글로벌 해외 연수 프로그램인 'JBU & SNU Joint Program in China' 입학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전북대 조희민 국제처장과 서울대 김태균 국제처장이 참석했으며, 양교 총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프로그램 출범을 축하하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대와 지역 거점 국립대학 간 교육 협력의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입학식에 앞서 양교는 'Joint SNU in the World Program'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글로벌 교육 자원 공유와 지속 가능한 공동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양 대학 국제처는 향후 글로벌 공동 연구 부문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학생들의 관심도 뜨거웠다. 전북대는 20명 모집에 102명이 지원해 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서울대는 20명 모집에 60명이 지원해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발된 40명의 학생은 서울대에서 1주일 간 사전 교육을 받은 뒤, 중국 상하이·항저우·선전을 방문해 2주간 현지 연수에 참여한다.

연수 과정에서 학생들은 일리바이, 자카자카차, 유니트리, BYD, 텐센트, 화웨이 등 중국 첨단 기업을 탐방하고, 산업 전문가 특강과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분석 등 실무 중심 프로그램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은 서울대와 지역 거점 국립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교육 인프라와 인적 자원을 상호 개방해 지역에 관계없이 최고 수준의 글로벌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학 간 경계를 허무는 개방형 공동교육 모델로서 국가전략발전과 미래 핵심 인재 양성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훈 기자

## "표절 의혹 받는 교육자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

### '교육감 출마'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

"상습적인 표절 의혹이 제기된 교육자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없습니다."

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전북배기전북교육포럼 상임대표)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출마 예정자인 천호성 전주교육대 교수의 표절 논란과 관련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15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문제는 정치적 공격이 아니라 교육감이라는 자리가 갖는 도덕적 무게를 지키기 위한 문제 제기"라며 "정직이 무너지면 교육도 무너진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천 교수의 표절 의혹을 언급하며 "2022년과 2024년에도 같은 문제가 제기돼 해명과 사과가 있었음에도 최근 블로그 글과 언론 기고문 등에서 10여 건에 이르는 유사한 표절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장은 "이쯤 되면 단발적인 실수나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상습적인 표절 그 자체가 판단의 근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감은 전북교육의 미래를 좌우하는 인사권과 예산권을 행사하는 자리"라며 "최소한의 도덕적 윤리 성조차 의심받는 인물에게 전북교육의 책임을 맡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표절은 학문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자 교육자의 자격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결격 사유"라며 "특히 언론 킬링이나 기고문, 블로그 같은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쉽게 접하는 지식 정보 채널인 만큼 그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장은 예비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 교수이자 교육감 후보의 책임을 강조하며 "아이들에게는 단 한 문장도 배까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이 15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작 본인은 상습적인 표절 논란 앞에서 실수했다고 말한다. 그 교육은 이미 붕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외국의 영역이 아니다'면서 '사과 이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공공교육을 책임질 자격이 있는 지 없는지를 명확히 가르는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진보 진영 단일화 논의와 관련해 "후보의 도덕적 결함으로 인해 정치적 청렴이라는 도덕적 기준이 무너지는 체 진행되는 단일화는 전북교육의 미래가 될 수 없다"며 "논란을 덮는 단일화,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적 연대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라며 "전북교육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당사자는 공공교육 앞에 책임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 학생 주도 탐구로 수학 학력신장 지원

### 전북교육청, 2026년 전북 수학교육 기본계획 수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 주도 수학 탐구 활동을 통해 학력 신장과 성장을 지원하는 '2026년 전북 수학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전북교육청은 학력신장을 수학교육 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아 수학 문제력 향상과 문제해결력 강화, 단계별 학력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모든 학생의 수학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생 수학 학력신장 프로그램으로 수학 문제력 향상 프로그램

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운영하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학 문제해결반 운영을 40팀으로 확대한다.

또, 문제해결 중심의 학생 수학 학력신장 캠프를 운영해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감을 높인다. 특히 학력신장을 단순한 성적 향상이 아닌 수학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으로 보고, 학생 주도 수학 탐구 활동과 수학동아리 100개 팀, 수학중점학교 67개교 운영 등을 통해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학교 현장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AI 기반 맞춤형 수학학습 지원을 통해 학생 개별 수준에 맞는 학습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초등수학학습 지원시스템과 온라인 수학 학습사이트를 활용해 기초부터 심화까지 연계되는 개별화 학습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교원의 수업·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와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교사의 전문성 향상이 학생 학력신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김재훈 기자

### 2025년 원어민 화상영어 토크 클래스 만족도·성취도 향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 '원어민 화상영어 토크 클래스' 사업이 학생 만족도와 성취도 평가에서 모두 성과를 거뒀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원어민과의 화상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실질적인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교 밖 청소년까지 총 1만8,104명이 참여했다.

수강 학생 대상으로 실시한 수업 만족도는 88.2%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만족도 86.4%보다 1.8%p 상승한 수치다. 영어 성취도 평가에서도 뚜렷한 성

과가 확인됐다. 수업 시작 전 진단평가와 수업 종료 후 진행된 읽기·말하기·듣기·쓰기 4개 영역의 성취도 평가 결과 참여 학생의 88.5%가 점수 향상을 기록한 것이다.

특히 1기수당 9주씩 운영된 단기간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학생이 실질적인 학습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재훈 기자

## 우석대, 28일 'WIN-RISE 사업 성과공유회'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라한호텔 전주 1층 온고을홀에서 2025 WIN-RISE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주캠퍼스 RISE사업단이 주최하고,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전북특별자치도, 전북RISE센터가 주관하며, 지역 사회와 대학 간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 구축과 WIN-RISE 사업의 성과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원주=염재복기자

행사에는 지자체와 산업체 연구기관, 도내 대학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전주캠퍼스 RISE사업단의 주요 사업 성과 발표가 진행된다.

또한 특성화인재양성·평생교육·창업·R&D·리빙랩 등 다양한 분야의 추진 성과 전시와 함께 기업·지자체·대학 관계자의 지식협력 사업 우수사례 발표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원주=염재복기자